요전박 유리피판술을 이용한 구강과 구인두의 재건 후 언어 및 연하기능 평가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김민식 · 이병훈* · 주영훈 · 선동일 · 조정해 · 박영학 · 조승호

목 적:

구강과 구인두의 종양절제술 후에 발생하는 결손의 적절한 재건에도 불구하고 언어 및 연하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. 이에 저자들은 구강과 구인두 악성종양수술 후 발생하는 결손의 재건에 요전박 유리피판술을 사용한 93례를 대상으로 언어 및 연하기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.

방 법:

199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강과 구인두 악성종양으로 수술을 시행받은 후 발생한 결손에 대해 요전박 유리피판을 사용, 재건을 받은 93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. 술 후 64명의 환자는 변형 바륨 연하검사를 이용하여 연하기능을 평가하였다. 또한 16명의 환자는 언어 병리학자에 의한 언어평가를 실시하였다.

결 과:

술후 변형 바륨 연하검사를 실시한 64명중 27명에서 흡인이 관찰되었으나 연하훈련 후 오직 2명에서만 심각한 흡인이 있어 연하재활 후 유동 식이를 시행할 수 있었다. 15명에서 후두개계곡에 잔유물이 남았으며 4명에서 입천장 인두기능부전이 관찰되었다. 16명에서 시행한 언어평가 중 13례에서 60%이상의 정확한 자음명료도를 보였고 모든 예에서 평균이상의 조음의 정확도가 측정되어 대화가 가능한 범위에 속했다.

결 론:

요전박 유리피판술은 구강및 구인두 악성종양의 수술후 언어 및 연하기능 회복에 매우 효과적인 재건 방법이다.